2025년, 포교 전환의 해로 만들자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을사년 새해에 즈음하여 한국불교는 전법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내외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종교적 원리주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안정을 찾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추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침체기에 직면하였고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종교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재정적 위기, 신뢰도의 추락이 염려되고 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사찰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자들의 신행활동 참여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젊은 층들의 템플스테이 참여가 증가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종단과 사찰에서도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서 수행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시의적절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 포교방법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의식과 의례, 그리고 신앙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포교방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전통 포교방법 한계 직면 예상
시대 조류 맞는 포교방법 필요
가정·직장 중심 포교 활성화를

한 신세대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공감하는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SNS로 빠르게 전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불자들도 SNS로 전해지는 각종 종교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사찰에서 신도들을 동원하려면 합리적 설득,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 모두가 각자의 일이 있고, 취미와 관심사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한 연령층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을 하고자 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직장과 직능별로 현장에서 포교할 수 있는 전문포교사가 요구된다. 때문에 사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신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법,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간단하게 불교의식으로 봉행하는 법,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이 있을 때 삼보를 예경하고 축원문을 낭독하는 방안 등이라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는 불자들이 많아지면 생활불교가 실천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신행활동이 사찰로 이어지고, 직장과 직능에서의 포교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올해는 가정과 직장 포교가 활성화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각 종단과 사찰에서 종책을 마련하고 확산시키기를 바란다.

좋은 사회 만들기,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연말연시가 되면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기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주고받는다. 해가 바뀐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다사다난함이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혼란은 기대만큼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난데없는 비행기 추락 사고는 신년벽두를 비통함으로 물들였다. 추운 겨울밤 광장을 메운 이들에게, 황망한 빈소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어떤 덕담을 건네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라는 몇 년 전의 외침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좋은 사회에 살고 싶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 최소한 이게 나라냐는 자조와 비아냥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를 우리

불국토 등 이상향은 '좋은 사회'
불교 사상, 이상향 도래의 해법
구현 주체로 노력하는지 자문을

는 원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장차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가 보장되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평등하게 소통하고 토론함으로써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를 우리는 바란다.

이처럼 이상향은 한없이 풀어낼 수 있다. 극락, 천국, 용화세계, 서방정토, 불국토 등도 모두 좋은 사회, 좋은 나라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불교는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미륵상생신앙이 강조하는 십선업(十善業), 유마경에 제시된 각종 수행이 모두 그것이다.

또한 중도, 팔정도, 육바라밀, 사섭법 등 불교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실천 윤리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토대로 나와 내 가족, 이웃, 나아가 세상을 고통에서 벗어난 정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연기의 관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은 실천을 통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적 해법의 근간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누구'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를 알리고,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가 있는지, 또 그들이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금 우리 불자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불자 모두가 언제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社 說

선명상 대중화 통한 전법 나서자

조계종이 올해도 '선명상 대중화'를 역점으로 포교·전법에 나선다.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1월 8일 열린 '불기2569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평가 및 37대 핵심 주요 종책과제 이행 점검 워크숍'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다.

진우 스님은 "포교가 안 되면 불교는 살길이 없다. 1970~80년대만 2000만 불자에서 2000년대부터는 1000만 불자, 지금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명상이 보급되면 전법도 자연히 이뤄진다"고 밝힌 스님은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이 같은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종무행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올해에도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암동 조계종 중앙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선명상대회를 열어 선명상 인프라 결집을 추진한다.

포교·전법이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는 것은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니즈를 충족 시켜줄 때 비로소 종교의 문턱을 넘는다. '선명상'은 그 문턱을 넘게 하는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전법에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태허 조사 정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는 관음종이 개산조 태허 조사를 기리는 법회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관음종은 1월 8일 대전 계룡스파텔 화랑홀에서 제62차 중앙종회를 열고 종단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관음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올해 10월 국립극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1부는 관음종 종정예하 영산 홍파 대종사의 법어와 법요가, 2부는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조사가 저술한 〈인생탈춤〉을 토대로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여진다.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는 경북 백화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한국전쟁 중 서울이 수복되자 상경해 참상을 목도하고 대중교화에 나섰다. 수행자로서 선방에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조사스님은 후학들에게 "우리 수행자는 일반 신도나 속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며 대중교화에 나섰다. 1958년부터 2년 동안 매일 오전 10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로3가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오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오로지 위민안락과 불법(佛法)홍포를 위해 거리에 나서 부처님 법을 전했던 태허 조사의 정신은 현재를 살고 있는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불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하신 태허 조사의 유훈을 후학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1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